(페이드 인 : 학교)  
3월에서 4월로 바뀌었지만 익숙한 학교 풍경, 똑같은 건물... 매일 똑같은 일상.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다르다.  
왜냐하면... ‘방금’ 더럽고 추악한, 교양 수업 하나를 드랍했으니까!

(팀플 개노답 삼형제 일화 회상 씬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하필 개 노답 삼형제가 걸리다니… 드랍을 참을 수 없다.

(꼬르륵)

..동기한테 밥은 먹었는 지 전화나 해봐야겠다.

....

....삐-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 샘으로...

(문자음)

*나 지금 팀플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바쁘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얼마 없는 친구까지도 팀플하느라 바쁘구나…

나만 한가한 거야?

…

놀랍게도 사실이었다.

이대로 그냥 집을 가기에는… 내키지 않는단 말이지.

**1. 편의점을 들린다.**

**2. 집으로 바로 간다.**

1. 편의점을 들린다.

자취하다 보니 요리하는 것도 귀찮은데... 혼자 편의점이라도 들릴까?  
그냥 적당히 때우던가 해야지.

**2. 집으로 바로 간다.**아, 생각해보니 리모컨 배터리가 다 떨어졌었지.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배터리 살 겸 밥도 사가야겠다!

------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 편의점)

…

지금 나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고민이 생겼다.

**치즈돈까스 김밥이냐…오삼불고기 김밥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1. 치즈돈까스 김밥  
2. 오삼불고기 김밥**

**..오늘은 이거다!**

몇 초간의 고심 끝에 겨우 메뉴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대 앞에는 한 여자가 대낮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딸기우유를 계산하고 있었다.

계산이요.  
대체 무슨 조합이지? 그래도 예쁘면 다 어울리는구나…

…  
얼굴이 낯이 익는데… 연예인...? 아, 아닌데 쓰읍.  
알바생이 느끼기에도 예뻤는 지, 얼굴을 붉힌 채로 여자의 얼굴을 몇 초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손님을 저렇게 쳐다봐도 되는 건가? 요즘은 쳐다만 봐도 신고 당하는 세상인데...

헛기침으로 눈치나 한 번 줘야겠.

뭘 봐요, 계산 안해요? (경멸)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기억났다.

저 말하는 싸가지를 보니 연예인은 개뿔. 그 때 다짜고짜 번호를 달라던 미친 년이였다.  
진짜 요즘 재수 옴이 붙었나? 무당집을 가야하나?

정말로 재수 옴이 붙은 것인 지, 그녀와 눈이 마주쳐버렸고…

어?

미친년은 나를 한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옹이 눈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 뭐래. 그때 그 알바생 맞잖아~? (웃음)

하아, 저번 일 때문에 이 사람이랑은 정말 엮이기 싫은데..  
**계산 끝났으면 얼른 가.시.죠? 저도 계산해야 하는데..**  
갈거야-. 참을성 좀 길러봐 꼬맹아. (웃음)

흐응~ 근데 너… 계향대 다니니?

**네? 어떻게…**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 과잠 입었지?  
그녀의 눈길을 따라 내려다본 곳에는 떡 하니 ‘계 향 대 학 교’가 박혀 있었다.

풉, 뭐야… 옹이 눈이라 오늘 입은 옷이 뭔 지도 안보이나 봐?

그녀는 벙찐 나를 보며 키득거렸다.

야 알바!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라이터랑 담배 좀 줄래?

네? 잘나가는 라이터요?

이 미친년은 아무래도 정신연령이 많이 어린 듯하다…

아, 아무거나 줘!! (당황 화냄)  
그녀는 이상한 주문을 한 후, 뻘쭘했는 지 괜한 알바생에게 화를 내고선 담배를 사들고 편의점을 나갔다.

알바생은 벙찐 얼굴을 지었지만 그 표정엔 인생의 쓴 맛이 담겨있었다.

**불쌍하구만…**

나는 다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괜히 알바생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

…

그래 임마. 인생은 아직 살만 하다구?

답지 않게 부린 멋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 서둘러 편의점을 빠져 나왔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 편의점 뒷 골목)

이름이 한서령…이랬나?   
얼굴이랑 딱 맞는 이름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름도 이쁘지?

신의 편심을 가득 받고 태어난 사람이란 딱 이런 느낌인 듯 했다.

**방금 담배 사간 거지? 하긴, 안 필 것 같진 않다….**

야 옹이 눈깔!

제발 그냥 좀 가라!!

아~ 난 담배피는 남자 싫은 데에.

**뭐, 뭐라고요?**

담배피는 것은 어떻게 안 건지... 당황한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어여쁜 얼굴로 이해하기 힘든 표정을 짓는 한서령에게 굳이 말을 걸고 싶진 않았다.

흐응-. 한 대줘?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는 홀릴 만큼 예뻤지만…

이 강렬한 니코틴 냄새...!!

훠이 훠이. 니코틴에 홀리기 전에 어서 가야지…

**안사요.**

대체 뭐가 맞는 거고 담배 핀 것은 어떻게 안 것인 지. 여러가지 잡생각이 났지만 그녀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본 나는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또 봐 옹이눈~!

…갔나?

...콜록 콜록.

켈록… 이 씨, 이런 건 왜 펴서는...!!

멀어지는 등 뒤로 달달한 담배 향이 났다.